

자기소개서

소 속	00초등학교	직 위	00	성 명	000
-----	--------	-----	----	-----	-----

더불어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교육을 꿈꾸며

학교와 교육청, 교육연구기관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현장에서 교육공동체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배롭게 바라보며 만났고 학부모 및 사회성원들과의 협력적 관계 속에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2024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삼계초등학교를 응원합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섬기는 준비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학교교육의 희망을 그려가기를 소망하며 공모 교장에 응모합니다.

■ ■ 받은 사랑만큼 사랑을 베풀 수 있다.

00군 00면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농촌의 애환과 서정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동네 한 가운데 노거수 정자나무가 수호신처럼 자리한 고향마을은 이웃이 정답게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장자나무 아래 너른 터에서 모여 온종일 뛰어놀았고, 사계절 산과 들을 내달리며 자연의 품 안에서 온갖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늘 신나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마을 입구에 모였습니다. 정겨운 가로수 신작로 길 따라 걸어가는 등갓길에는 이야기꽃,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학교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즐거운 배움이 있었으며, 오후 그림자가 운동장 끝까지 길어지도록 함께 놀고도 헤어지기 아쉬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격언은 모두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 교육철학의 바탕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와 가정, 이웃과 사회에서 받은 넘치는 사랑과 따뜻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저마다의 삶을 끝내 바른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가치에 대한 신념은 분명 제가 받아왔던 크고 넓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 빛깔 있는 학급경영, 독서교육 전문가, 연구하는 교사

교육자는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꽃을 피웁니다. 교사의 학급경영에는 교사 자신만의 교육철학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고, 교육활동의 실체가 정성스레 가꾸지는 정원과 같다 하겠습니다. 교사로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준비하던 새내기 교사 시절이 떠오릅니다. ‘레크레이션 지도자 전문과정’, ‘아동 이해를 위한 미술지도자 과정’, ‘외국어 회화’, ‘서양화 실기’, ‘악기 및 밴드음악 실기’ 등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차츰 이런 개별적인 교육 기술보다도 가장 갈급했고 필요하다고 여긴 것은 교육혁신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혼자

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생각을 같이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학급경영연구모임, 어린이책읽기연구모임 등을 결성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교과연구회’의 개념조차 생소하던 그 시절에 학생상담기법, 글쓰기지도, 생활지도, 주제학습, 통일교육, 교과지도, 역사문화답사, 독서토론 등을 주제로 연구하고 실천했습니다. 활발한 활동은 입소문을 타고 모범사례가 되어,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에서 첫 실시한 우수 교과연구회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연구회활동은 풍부한 자양분이 되어, 학급과 학교문화를 쇄신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정보 공유와 확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교사연수에서 강사 초빙되어 학교를 새롭게 해나가는 운동에 조력할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독서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04년부터 **어린이책읽기교육연구** 활동을 다채롭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전문가 초청 각종 강좌, 독서체험교실, 책둘러읽기 사업, 독서캠프, 독서논술지도자과정직무연수 개설, 학교마을도서관을 활용한 각종 독서 교육사업(도서관 콘서트, 학부모 아카데미, 연극공연 등)들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2010년 전국학교마을도서관 운영자 우수사례 발표, 2011년 전국학교마을도서관 우수운영자 토론회 패널 초청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겨레신문의 지면을 장식하거나 교육잡지 ‘우리교육’에 심층인터뷰에 취재되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바람직한 학교도서관 문화를 알릴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교육연구에 깊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노력은 교육 활동을 더욱 생동감 있도록 하고, 자기질문을 통해 교육 좌표를 재설정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수학교육과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활동, 그리고 심도있는 학습을 위한 박사과정(교육00) 진학을 통하여 교육과 사회에 대해 보다 더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각종 연구활동에 전방위로 참여하였으며 우리들의 교육 활동 실천의 밑바탕이 되는 연구와 검증, 그리고 새로운 모색 활동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수학교육에 대해서는 대학 전공 시절부터 지금까지 관련 활동을 이어오면서, 학생의 사고력,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해왔습니다. 수학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교육청 영재교실 전담강사, 국정 수학교과서 집필진으로 활동했습니다. 영재교육원 강의 및 자료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심화교육자료 개발 등에 참여하며 이론과 실재를 익혔습니다. 2009-2012년 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겸임강사로 임용되어 출강하였으며, 각종 컨설팅 활동을 통하여 수업개선, 학생사고촉진, 연구활동을 위해 고민하는 후배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고민하는 후배선생님들과 동료교사로서 동지의식을 갖고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좋은 선생님들이야말로 저의 진정한 자산과도 같아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 ■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학생 교육활동은 학교 교과수업을 통해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의미 있는 체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실수업에서 배운 교과지식을 살아있는 삶의 지식으로 정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급의 벽에 갇히지 않고, 학교의 일과에 구속받지 않는 색다른 체험 기회를 아이들과 공리하고 꾸준히 실천하였습니다.

청소년단체 지도자로서 첫 인연을 맺은 2002년 이후, 기획 개발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의 만족도와 학부모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깨달음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하고자 하천 생태 탐사, 문화 역사 답사, 광복60주년 금강산 탐방, 통일 의식을 키워주는 통일한마당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생태교육과 통일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지키고 실현해야 할 과제이기에 그와 관련된 꾸준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07년, 중국의 대표 청소년단체인 0000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중국교육부에 방문하여 국제교류 기회를 얻기도 했고, 청소년백두장 훈장을 수훈하였습니다.

교육적문직 시절에도 청소년 영어캠프, 다문화이주여성 영어강사 지원을 위한 워크숍, 청소년 진로체험지도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으며, 학교로 교감 발령 받은 후에도 학부모 독서토론, 어린이 환경동아리 운영, 아침등굣길 버스킹, 장기자랑, 마을축제 공연참가 등 다채롭고 이색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관련협의회 위원으로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특별히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학부모와의 소통능력에 대해서는 각별한 자신감을 얻어 언제나 협조적인 관계를 이끌어가며 학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학부모회가 함께 하는 학교 꾸미기 활동, 학부모의 교육 고민을 함께 나누는 학부모아카데미 등을 펼쳐왔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00초에서도 학부모회 상담과 부적응학생 상담을 전담하며, 학교와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세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오는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그 덕분에 근무하는 3년 6개월여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학부모 민원이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교육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학교업무에서도 발령 2년차 때부터 각종 부장교사로서 학교업무에 참여하였고, 교육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활동, 언론투고, 시사토론 프로그램 출연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노력했습니다. 장학사, 교감을 거치는 동안도 한가지 철학으로 매진하였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먼저이다! 사람이 전부이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묵묵히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